우암학원 창학 75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SINCE 1952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본점·여신사업부·문흥지점·양산지점·운암지점·매곡지점·첨단지점·동림지점·동광주지점·각화지점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521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5월 29일 2025년 6월 24일 화요일

광주, 지하철2호선 등 786억원 전남, SOC 분야 등 6025억원

정부 추경 확보 현안사업 탄력 "신속 집행으로 효과 극대화"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30조5000억원 규모)에 광주·전남 핵심사업인 광주 도시철도 2호선과 전남 호남고속 철도 등의 예산 6811억원이 반영됐다. 〈관련기사 3면〉

광주의 역점사업인 AI 중심도시 2단계 사업으로 가기 위한 연계사업 예산이 확보돼 사업이 탄력을 받게됐다. 전남도도 석유화학 위기 대응, 항구개발·복구 사업 예산 등을 확보해 관련사업에 업에 숨통이 틔이게 됐다.

2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제2회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광주시와 전남도 주요사업은 각각 5건(786억원), 14건(6025억원)이다.

광주시의 AI산업 관련 모빌리티 AX실증랩 조성(20억원), 초격차 스타트업 1000+(30억원),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R&D)(10억원) 사업이 포함됐다.

도시철도 1호선 철도통합무선망(LTE-R)구축(11억원)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715억원) 2건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 시는 SOC확충에 속도가 붙고 침체한 지역 건설업계에도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단독 예산은 아니지만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한 국비에 광주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예산 33억6000만원도 포함됐다.

경기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0조30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6000억 원 등 지역화폐 관련 국비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광주상생카드'의 할인률(기존 7~10%)은 13%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여 골목상권에도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광주공공배달앱 등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 국회 본회의 통과 전까지 추경안에 포함되도록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23일 광주시 동구 필문대로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건립 공사. 정부 2차 추경안에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예산 등이 포함돼 공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의 미래 산업과 민생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이재명 정부와 함께 힘차게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와 관련된 예산은 모두 6025억원이 반영됐다. 전남도는 철도와 도로 등 SOC 분야에 1460억원을 확보했다.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등 지역현안 SOC 사업 3개가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SOC 예산은 부족한 철도, 도로 건설로 전남도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함은 물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추경안에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켄텍) 운영 출연금 100억원이 반영됐다.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여수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위기 대응 예산 37억원도 포함됐다. 예산은 석유화학 중소기업 지원과 여수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등에 쓰인다.

마른김 가공공장 시설개선 지원(60억원)과 재해위험지구 개선(78억원) 등 지역 현안에 투입될 국비도 확보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사업인 전국민 민생지원금 예산은 3570억원이 배정됐다. 또 지역화폐 발행에 들어갈 국비 428억원도 확보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추경이 확정되면 신속집행을 통해 경기회복과 민생안정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사전 절차 등 준비에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23일 국회에 제출돼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본회의 의사 일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번주에 단독으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요란한 장맛비·30도 찜통더위…'요지경' 날씨

광주·전남 20~60㎜ 비

제주도 부근 해상에 머물던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광주·전남지역에 다시 장맛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됐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장마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 영향으로 24일 새벽부터 25일 새벽까지 광주·전남 지역에 비가 내린다"고 예보했다.

24일부터 25일 새벽까지 비는 20~60㎜가 내릴 전망이다.

24일은 광주·전남에 시간당 10~20㎜의 강한 비가 내리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비는 25일 새벽까지 내렸다가 이후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낮 기온이 30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다소 누그러지겠다.

24일 아침최저기온은 19~21도, 낮최고기온은 23~25도, 25일 아침최저기온은 19~20도, 낮최고기온은 24~28도가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장마전선과 장마전선 상에서 발달한 저기압 위치에 따라 강수 구역과 시점, 강수량 등이 달라지겠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윗줄 왼쪽부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아래줄 왼쪽부터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된 윤창렬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 〈대통령실 제공〉

민간 출신 국방장관 안규백

이 대통령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

김성환·조현·정동영·안규백 호남 인사 대거 등용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단행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권오을 전 의원이 국가보훈부 장관에 인선되면서 이 대통령의 국민 통합 의지가 강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 국방부 안규백(전북 고창·광주 서석고)·환경부 김성환(여수)·외교부 조현(전북 김제)·통일부 정동영(전북 순창) 장관 후보자 등 호남 인사들도 대거 등용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첫 내각 후보자들을 발표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안규백 의원을 지명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다. 강 비서실장은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 간사와 국방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방위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며 "64년 만의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당 중진 정동영 의원,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을 지명했다. 이와 관련 강 비서실장은 "정 후보자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이라며 "북한과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는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을 발탁했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오을 전 의원을 낙점했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지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성숙 네이버 고문을 발탁했고,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명했다.

또 송미령 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고, 국무조정실장으로는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임명됐다.

한편 강 비서실장은 이날 발표된 후보자 가운데 일부는 국민추천제 추천 인물 리스트에도 포함됐던 인사들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제주항공 참사 6개월 지나 피해 조사? ▶6면
팔도 건축기행 - 광주 무등산 의재미술관 ▶18면
타이거즈 전망대 - 상위권 도약 속도 낸다 ▶22면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